

WCPFC 전자보고 및 전자감시 작업반 회의(7차) 참석 결과

□ 개요

- (일시/장소) '25.11.19(수) 08:00~10:00(한국시간) / 화상회의
- (참석자) 한국, 일본, 중국, 대만, 미국, FFA, NGO 등 약 60명
- (회의목적) 전자감시(EM) 사용 승인 평가 및 보증 과정에 관한 문서 초안 검토, 선박감시계획 양식 등 보고양식 검토

□ 주요내용

- 잠정 승인(interim authorization)과 정식 승인(full authorization)
 - 정식 승인 전 EM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잠정 승인 필요성과 2개 승인의 차이점이 논의되었음
 - 임시 승인과 정식 승인은 과거 WCPFC 국내 유희버 프로그램들에 적용했던 것으로 EM에도 동일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 있었음
 - EM에 대한 임시 승인과 정식 승인을 하고 있는 다른 기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
 - 미국, 호주, 뉴지는 임시 승인 없이 바로 정식 승인을 위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1단계 접근을 지지하였음
 - 회원들은 미국, 호주, 뉴지와 같이 이미 EM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 승인 없이 바로 정식 승인 과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음
 - EM을 사용할 수도 있는(eligible) 선박 목록 제출 필요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음. 동 목록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고(일본) 정식 승인을 위해서는 동 목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(뉴지)

○ 보증

- PEW는 승인 과정에 관한 문서 내용은 좋으나, 보증(정보의 정확성)에 관한 문서 내용은 취약하다고 하였음
- 일본은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고, 대만은 모든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음

○ 평가 방법

- 평가를 위해 선박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한지 여부가 제기되었음
- 호주는 대면 평가를 하면 (비용은 더 들 수 있으나)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보다 비밀유지에 용이하고 전체 시스템의 기능 작동을 볼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고 하였음. 미국도 호주 의견에 동의하였음
- 일본은 대면 평가는 실행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음. 평가 대상이 되는 선박은 100척 이상이나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선박은 10척 미만일 것이라고 하였음. 평가 방법은 평가하는 내용에 달려 있다고 하였고, 대면/비대면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고,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음

○ 평가 주기

- 문서 초안은 5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나,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3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음
- 최초에 대면 평가를 하면 추후에는 2-3년 주기로 비대면 평가를 하는 방법(호주), 최초는 3년으로 하고 추후 주기를 늘리는 방법(일본) 등이 제시되었음

○ 선박감시계획(VMP)

- 대만은 작년 연례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VMP를 하지 않기로 했음을 상기시키고 문서 초안에 제시되어 있는 VMP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

- 하였음. 의장은 회원들 간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양식을 제공할 것이 요청되었다고 답변하였음
- 대만은 VMP를 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하였고, 의장은 제시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고, 위원회가 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라고 하였음
 - 미국과 호주는 VMP 목적은 계속 논의 중인 주제로, EM이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, 검색 CCM이 EM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였음
 - 의장은 EM 임시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논의될 예정으로, VMP의 사무국 제출 및 선박 비치에 대해서도 다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음
 - 일본은 요구되는 입력 정보 중 일부(통제 박스 요약, 카메라 설치 요약 등)는 다른 기구에서는 없다고 하였고, 기구 간 일관성 필요와 정보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

□ 향후 계획

- 작업반 의장은 본인은 이번 연례회의에 대면으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였음
- 연례회의에서 작업반 세션을 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, 일본은 이번 회의 논의내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고, 수정되어 회람되는 문서도 검토해야 하고, 연례회의에서 미국 제안서를 통해서 EM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므로, 1월 화상회의를 지지하였음
- 다음 작업반 회의(8차)는 1.14(수)에 화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음